

특집 / 2003년판 한국도서관기준의 의의와 특징



〈2〉 대학도서관

윤 희 훈*



1981년에 발간된 이후 22년만에 개정된 2003년판 대학도서관기준은 과거의 기준에 비해 여러 측면에서 변화가 있었고 내용도 상당히 보강되었다. 그 주요 특징과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 우선 전체적인 구성체제와 항목설정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 이를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과거 기준은 대학도서관의 투입요소인 자료, 시설, 예산을 봉사활동 다음에 배치하였으나, 대학도서관 업무의 흐름상 투입-처리-산출의 순차성을 중시하여 투입요소를 산출요소인 이용자봉사 앞으로 배치하였다.

〈표 1〉 대학도서관기준의 항목구성 및 배치순서의 비교

1981년판	2003년판
1. 원칙 및 목적	1. 사명과 목적
2. 조직 및 인사	2. 조직 및 인적 자원
3. 봉사활동	3. 자료
4. 자료	4. 시설
5. 시설	5. 예산
6. 예산	6. 이용자봉사
	7. 평가

2. 전반적으로 기준의 내용을 대폭 보강하고 정교하게 재구성하였으며, 특히 시대상황에 적합한 용어와 마인드를 대거 반영하였다. 인터넷 및 디지털 환경에서 대학도서관계에서 범용되고 있는 용어,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yhy@daegu.ac.kr

즉 학술정보센터, 정보게이트웨이, 디지털정보, 링크와 다운로드, 웹사이트의 관리, 매체변형, 아웃소싱, OPAC, 워크스테이션, VDT 등이 반증한다.

3. 제1장(사명과 목적)에서는 과거의 기준이 학내의 도서관, 인쇄자료 중심의 사명과 목적을 기술한데 비하여 2003년판은 캠퍼스내의 학술정보센터, 학내외의 정보게이트웨이, 지역사회를 위한 개방 등을 중시하였다. 즉, 자료의 유형이나 소장처를 불문하고 모든 학술정보를 수집·제공하고 접근가능한 시스템으로서의 역할과 캠퍼스내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였다.
4. 제2장(조직 및 인적 자원)에서는 일반원칙으로 조직의 지속적인 개편, 직무분석을 통한 전문직 및 비전문직 업무의 구분과 분장, 인력구성의 다양성, 계속교육의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조직에서는 도서관의 총장직속 기구화, 핵심기능(장서개발, 자료조직, 정보봉사) 중심의 부서화, 학내 관련기관과의 유기적 내지 기능적 제휴의 강화 등을 추가하였고, 인적 자원에서는 관장의 전문성, 전임제 부관장의 배치, 중간관리자의 자격강화(1급 정사서), 전체직원의 전문직 대 비전문직의 구성비율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전문인력의 역량강화를 강조하였다. 특히 직원배치 기준에서 장서증가에 따른 인력 증원의 경우, 과거의 20,000원당 1명을 15,000원당 1명으로 바꾸고 비사서직원의 증원비율을 사서직 증원수의 70%로 제한함으로써 장서의 품질강화를 인력배치와 연계하고 비사서직원의 무분별한 증원에 따른 전문성의 약화를 차단하고자 하였다.
5. 제3장(자료)에서는 장서개발(관리)정책의 성문화, 다양한 정보매체의 수용, 인터넷 정보자원의 다운로드와 링크, 소장자료의 디지털화, 국가차원의 협력망 구축을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학문영역 또는 주제별 장서구성의 전략과 우선순위, 집서수준, 전자잡지의 컨소시엄, 복본의 구입기준, 인쇄자료의 산성화 대책, 디지털화의 우선순위, 매체변환, 자료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장서기준은 종래의 포괄적인 기준을 자료유형, 즉 단행본, 학술지, 서지데이터베이스로 세분하여 각각의 구성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주목할 내용은 기본도서를 '학생 1인당 50권 이상'으로, 연간 증가책수를 '학생 1인당 2종 이상'으로 설정함으로써 역시 종수의 다양화를 통한 품질강화에 치중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학술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확보기준도 종래보다 크게 강화하였다.
6. 제4장(시설)에서는 건축계획의 중요성, 건물의 규모와 입지조건, 공간구성과 동선계획, 정보기술의 주기적인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원칙을 새로 제시하였고, 각종 시설기준(최소 면적기준, 순사용면적의 비율, 공간별 면적배분 및 최소기준, 서고의 적재하중, 워크스테이션의 인간공학적 기준, 조명기준, 소음 허용기준 등)을 신설·구체화하였으며, 장애자의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을 강조하였다.
7. 제5장(예산)에서는 관장의 예산편성·집행·결산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명시하고, 과거 기준에서 오류로 지적된 자료예산의 최소기준을 재조정(종래는 총경상비의 4% 이상이었으나 2~25%로 수정)하였다. 또한 예산의 항목별·자료유형별·이용집단별 배정비율을 설정하고, 전자자료 구입 및

온라인 접근비용(자료예산의 10% 이상)도 신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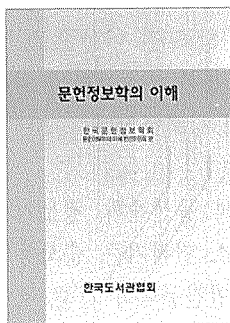
8. 제6장(이용자봉사)에서는 모든 정보유형의 적시적 봉사, 장애학생 봉사, 지역사회 개방, 이용자를 위한 봉사원칙과 프라이버시 보장 등을 추가하였다. 구체적으로 대출 및 열람봉사는 개가제 운영, 참고·정보봉사는 정보자료의 이용 및 접근권 보장, 서지데이터베이스의 온라인 검색, ILL/DDS를 통한 미소장자료의 제공봉사 등을 규정하였다.
9. 마지막으로 제7장(평가)은 대학종합평가인정제에 의한 대학평가가 실시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신설한 것으로 대학도서관 평가의 당위성과 사후조치, 주기적 평가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평가점수의 비중과 평가지표를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2003년판 대학도서관기준의 특징과 내용을 간추려 보았으나, 여전히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다. 또한 국내 대학도서관계의 실상에 비추어 괴리를 보이는 내용과 기준도 다수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년만에 새로운 한국도서관기준을 마련하였다는 측면에서 많은 것을 시사하며, 그 의미도 적지 않다. 그리고 앞으로는 가능한 한 5년을 주기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기준은 어디까지나 협회차원의 권장기준이므로 법적 강제성이나 구속력이 없다. 이를 준칙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미진함에도 불구하고 천신만고 끝에 새로 제정한 기준이 한국 대학도서관계에 적용되어 인적 및 물적 인프라의 충실화를 통한 학술정보서비스의 제고, 교육 및 연구생산성의 증대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신 간

문헌정보학의 이해

한국문헌정보학회 문헌정보학의 이해 편찬위원회 편



양장본/크라운판/681쪽
ISBN 89-7678-074-4
정가 30,000원
회원보급가 24,000원

※ 학과 교육용 ※
반양장본/크라운판
정가 18,000원
교육용보급가 14,400원

목 차

- 제1편 지식정보 사회
- 제2편 문헌정보학의 발달
- 제3편 문헌정보학의 체계
- 제4편 도서관·정보 센터
- 제5편 디지털도서관

문의 한국도서관협회 전화 : 02-535-4868 팩스 : 02-535-5616 e-mail : w3master@koria.or.kr